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내일 문 연다

국산제품 우선 공제…고가명품·담배는 안 팔아
구매한도 600달러…외국·시내면세점 구입 물품 합산 과세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첫 영업을 시작하는 입국장 면세점이지만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공항을 빠져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변화가 없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넘는 고가 명품을 팔지 않는다. 담배도 판매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발표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어 났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여행객이 구입한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된다.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수하물을 찾고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매 물품을 수하물에 넣을 경우 사복 근무 순회 직원들의 검사를 받게 돼 주의 해야 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한다. 개장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3.32 (-25.51)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4)
↓ 코스닥 691.47 (-11.29)	↑ 환율 (USD) 1193.90 (+8.10)

'2019년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가 29일 영암농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 총회

신임 협의회장 양수원 조합장

양수원 녹동농협 조합장이 29일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영암농협 회의실에서 '2019년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33개 수출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 지역의 수출유망 품목의 발굴과 수출 전문조직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 회원농협은 지난해 60여 품목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3600만 달러(430억여 원)를 20여개 국가에 수출하며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원농협인 완도농협(수출액 1200만 달러), 녹동농협(〃300만 달러)은 올해 초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신규 수출탑을 수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컬쳐 데이'
첨단산단 직원 문화생활 지원

광주테크노파크는 29일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표준시사실에서 '컬쳐 데이' 행사를 열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컬쳐 데이'를 열어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기관 임직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번째 열린 이날 행사 주제는 '최첨단 VR & 스마트 시티 3D GIS'로 정했다.

㈜유오케이는 도시 정비·개발을 위한 3D스캔기술과 지난해 자체 개발한 차세대 공간정보 시스템을 선보였다.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소속 40명 등 100여명이 참석해 3D 관련 콘텐츠를 관람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증강현실(VR·AR), 드론, 인공지능 기술 체험을 했다.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컬쳐 데이는 첨단산단 인근 기업·기관 임직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과 문화의 융합산업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체험학습의 장"이라며 "첨단산단 직원과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연말까지 첨단산단 입주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기업이 제작한 3D콘텐츠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602-0204.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담양샘물아동센터 어린이 '금융을 부탁해' 교육

광주은행은 지난 27일 담양샘물지역아동센터에서 담양지역 어린이 30여명과 함께 '금융을 부탁해'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7일 오후 담양샘물지역아동센터에서 전남 담양지역 어린이들 30여명과 함께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은 광주은행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매년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을 만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금융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저학년 초등학생에게는 화폐의 변천사와 세계의 다양한 화폐를 설명하고, 고학년 초등학생에게는 현명한 용돈관리를 위한 용돈기입장 쓰는 법과 용돈 보드게임을 통한 경제알기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경제교육을 재미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저축목표를 세워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광주은행 임숙경 사회공헌실장은 "광주은행에서 실시하는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은 경제교육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교육을 비롯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광주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심리 3개월 연속 악화

전달보다 1.6포인트 낮아져
경기 불황·물가 인상 영향

광주·전남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9일 발표한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1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2월 104.6를 기록한 뒤 지수는 ▲3월 103.2 ▲4월 102.7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 100(2003~2016년 평균)을 밑돌면 비관적 소비자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는 양호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생활형편·경기판단·취업기회 전망 등이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6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 CSI는 85로 2포인트 떨어졌다.

나빠진 고용지표 탓에 취업기회전망 CSI는 87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지수 하락폭(3포인트) 보다 컸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119로 1포인트 올랐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표현하는 현재생활형편 CSI는 92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현재가계저축 CSI와 가계저축전망 CSI는 각각 93과 94로 3포인트씩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팍팍한 살림 사정은 물가 인상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기름 값과 원/달러 환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수준전망 CSI는 13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 CSI는 110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오르는 물가에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